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SectionⅡ_ 아동(청소년)분과 세미나

일 시 : 2010년 10월 14일 목요일
오전 10:00 ~ 오후 13:00

장 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들레헴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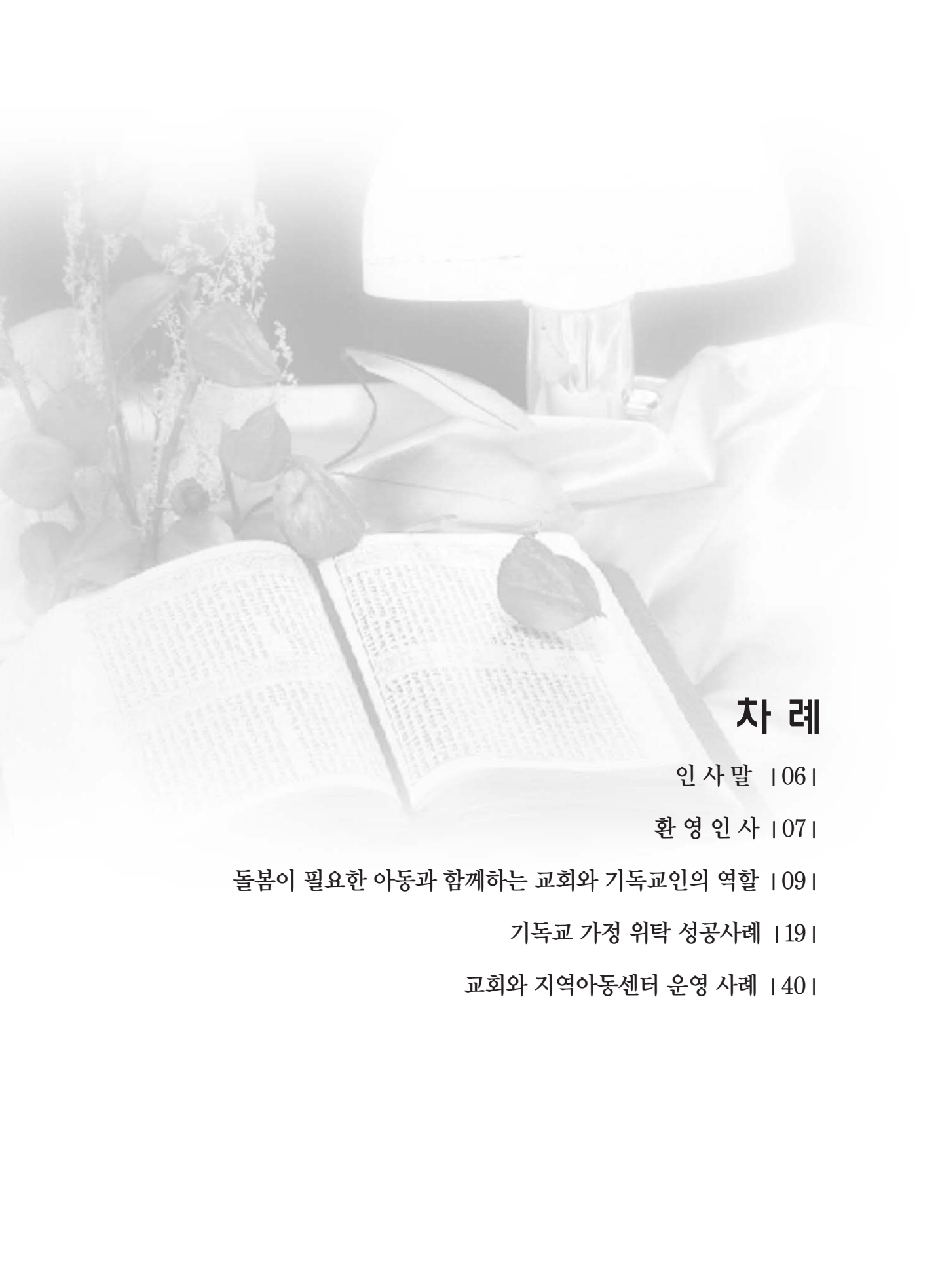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0 조직위원회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



차례

인사말 106 |

환영인사 107 |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함께하는 교회와 기독교인의 역할 109 |

기독교 가정 위탁 성공사례 119 |

교회와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례 140 |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아동(청소년)분과-

1. 일 시 : 2010. 10. 14(목) 오전 10:00 ~ 오후 13:00
2. 장 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들레헴성전(대성전 제1출입구)
3. 등 록 비 : 무료
4. 행사안내 :
 - 1) 전화 및 팩스(Tel. 02-747-1225 학술팀 / Fax. 02-764-1225)
 - 2) E-mail(expo2010_head@hotmail.com)

5. 행사일정

시 간	순 서	내 용
09:45~10:00	경배와 찬양	여의도순복음교회 청년국 찬양팀
10:00~10:30	개회예배	인도_ 강은숙 목사(예장통합 사회봉사부) 기도_ 인도자 설교_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설교시간은 10:05~10:25입니다) 축도_ 설교자
좌장 : 곽현희 목사(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장)		
10:30~11:00	기조강연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함께하는 교회와 기독교인의 역할” _ 조흥식 교수(서울대학교)
11:00~11:30	발표1	“기독교 가정 위탁 성공사례” _ 강미희 팀장(한국수양부모협회)
11:30~12:00	발표2	“빈곤아동 및 아간보호 사례” _ 이경림 대표(부스러기사랑나눔회)
12:00~12:30	발표3	“교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례” _ 이돈주 목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12:30~13:00	종합토론	

| 환영인사 |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이영훈 목사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조직위원장,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의 역사속에서 지난 125여년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한국교회가 실천해 온 다양한 섬김의 모습은 한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많은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은 현재 한국 사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와 기독교 사회복지단체가 한 곳에 모여 지금까지 실천해 온 그 귀한 사역을 한국교회가 사회 앞에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엑스포가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섬김의 사역을 다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에는 따뜻한 격려를, 새로운 복지사역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와 단체에는 힘찬 용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알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복지사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됨으로 기도와 참여, 후원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함께하는 교회와 기독교인의 역할

조흥식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기독교와 아동복지

1) 아동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아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생명의 존엄함을 지닌 한 인격적 존재이다. 아동은 부모의 보호를 기초로 하여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아동의 특성은 무엇보다 우선 가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가정은 모든 만물의 창조 이후로 존재하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사회제도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러한 가정이 인간의 죄악으로 파괴된 곳에는 이웃과 교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이차대전 후에 유엔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되었으며, 1989년에 제정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하여 각국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매 5년마다 협약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있다.

아동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은 우선, 구약성경에서 발견된다.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축복이며 창조질서임을 보여준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창1:28)을 따라 인간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으로써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나아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서의 지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아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목적의식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아동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가복음(9:36-37; 10:14-16)에서 예수님은 아동을 용납하여 영접하시고,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심으로써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을 예수께로 가까이 데려오게 하심은 아동 한 명 한명의 권리와 삶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며, 아동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심은 아동의 안전과 보호, 삶의 소망과 비전에 대한 돌봄을 의미한다. 아동을 용납하고 영접함으로써 아동을 위한 주님의 평화와 안정감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도록 돕는다(강명순, 2005:443-444).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작은 자'를 보살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인데, 가장 작은 자에는 아동도 포함된다. 기독교인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아동을 보살필 수 있는 다양한 인력들이 있어 아동을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지역사회와 다른 교회 및 사회기관들과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심지어 교회에는 주중에 쓰지 않는 공간과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아동을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빈곤지역에서는 교회가 아동을 위한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 문제에 천착함으로써 교회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한편, 성경과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아동문제의 이해는 창조, 타락, 구속과 완성으로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인식의 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오정수, 1991).

첫째, 아동은 누구인가? 아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며, 영적 존재인 동시에 육체적 존재이며, 전지전능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존재한다. 아동을 위한 사랑과 공의

의 근본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온다. 아동은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교제를 필요로 하는 관계적인 존재이다.

둘째,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아동의 빈곤과 박탈, 억압은 악이며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인간의 이기심과 악은 아동을 하나님의 목적과 성품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셋째, 무엇이 해결책인가? 아동문제의 해결책은 아동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치유와 긍휼하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시며, 아동을 악으로부터 구원하고 치유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의 준거들은 아동 돌봄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회와 기독교인에게 도움을 준다. 또한, 아동에 대한 기존 잘못된 인식과 관습을 바로잡고 건전한 아동양육을 위한 기초가 된다. 물론 아동 돌봄 문제를 해석하고 접근하는 사례를 접할 때는 이 준거들을 창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 아동복지의 개념과 아동복지서비스 유형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란 개념에는 다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①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보호를 향한 이념과 가치, ② 아동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③ 아동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인간서비스의 한 부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날 아동복지의 개념은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수반하는 복지이념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특히 실천적인 면에서 아동복지의 사회복지의 한 하위 영역으로서 아동복지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요청되는 분야라는 관점에서 전문적 교육훈련과 실천경험을 가진 아동복지전문가에 의하여 모든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장인협·오정수, 2000).

사실상 아동복지의 개념은 역사적 발전의 맥락에서 고정된 개념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사상에 따라 각기 다르게 표현되어 왔다. 특히 산업화 이후의 아동복지의 가족이나 시장 기구의 역할에 부수적인 잔여적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회제도와 동등한 위치의 독립된 제도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오늘날 아동복지도 잔여적 의미 보다는 제도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아동복지의 부모가 아동양육의 책임을 충족시킬 수 없거나 또는 지역사회가 아동과 가족이 요구하는 보호와 자원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하여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서비스는 부모들이 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능들을 지원, 보충, 대리하거나, 현존의 사회제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조직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족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서비스는 지원적(supportive) 서비스, 보충적(supplementary) 서비스, 그리고 대리적(substitutive)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원적 서비스는 가족구성원인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이 지원적 서비스는 아동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므로 지원적 서비스는 부모와 아동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데 국한된다. 이러한 지원적 서비스에는 아동상담, 학대와 방임아동 돌봄, 미혼부모상담 등 개별사회복지사업(case work service), 가족 상담과 가족치료,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상담 등 여러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이 속한다.

특히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개인이나 집단의 욕구를 개인, 집단, 사회의 상호관련 속에서 충족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즉, 아동복지와 관련된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지역 내의 아동복지를 위한 자원과 환경을 사회의 다양한 조직 활동을 통해 개발,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사회복지기관과 아동기관에서 제공하는 데 사회복지기관은 주로 부모에 대한 서비스제

공 등을 통해서, 그리고 아동기관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시도한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지역사회 모든 자원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교회나 기독교인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지원적 서비스는 부모와 자녀들이 더 많은 만족감을 갖고 갈등을 최소화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 나아가서 가족구성원의 사회기능수행을 향상시켜 가족해체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함께하는 교회와 기독교인도 이러한 지원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상담, 학대와 방임아동 돌봄, 미혼부모상담, 가족 상담,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상담 등을 실행할 수 있다.

둘째, 보충적 서비스는 부모의 역할 일부를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서비스는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국가의 공공부조와 아동수당제도, 그리고 가정조성사업(home-maker service), 영유아보육사업 등이 있다. 가정조성사업과 영유아보육사업은 국가와 함께 민간도 할 수 있다.

가정조성사업은 흔히 재가복지사업의 하나로서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돌보거나 가사 일을 도움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보충해 주는 일을 한다. 그리고 영유아보육사업은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행동능력 향상, 타인과의 협동, 자립심 고양 등을 기할 수 있다. 아울러 부모 모두 가정 밖 노동을 가능하게 해 가정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어 아동에게 긴장감이나 공격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돌봄이가 자주 바뀌는 경우 역기능도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함께하는 교회와 기독교인도 이러한 보충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조성사업과 영유아보육사업 등을 실행할 수 있다.

셋째, 대리적 서비스는 부모와 자녀 및 가족관계가 일시적 혹은 영구히 해체된 정도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개입하는 아동 돌봄 수단이다. 여기에는 입양사업, 가정위탁보호사업, 그리고 시설보호사업 등이 있다.

입양사업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영구히 해체된 경우 법적 관계에 의해 새로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부모의 이혼, 사망, 아동유기 등으로 가정이 파괴된 경우 혹은 아동이 가정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대리적으로 가정적 돌봄을 받는 것이다. 시설보호사업은 사정상 가정 내에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거나 가정위탁보호도 불가능한 경우 일시적이거나 성인이 되기까지 장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함께하는 교회와 기독교인도 이러한 대리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입양사업, 가정위탁보호사업, 그리고 시설보호사업 등을 실행할 수 있다.

2. 교회와 기독교인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

1) 빈곤아동

빈곤아동에 대한 교회와 기독교인의 아동복지 실천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아동을 도우라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실천해 왔다. 현대사회에서도 빈곤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실천은 지역교회와 기독교사회복지기관에 의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빈곤은 아동의 삶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발육부진, 발달지체 등과 같은 신체발달의 문제에서부터 저지능, 학습부진과 같은 인지발달의 문

제, 우울과 불안 등 내면화된 문제,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 등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빈곤은 경제적 부족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결과 빈곤아동은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환경의 측면에서 빈곤하지 않은 아동 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빈곤아동 문제에 접근하는 교회와 기독교인은 빈곤아동이 갖고 있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이 가능하도록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환경의 측면에 관심을 갖고 다차원의 돌봄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여 빈곤아동 문제에 접근하는 교회와 기독교인은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의 고리를 끊고 순선환의 성장과 발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아동의 개별적 특성,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환경에서 아동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오정수, 2008:347).

빈곤아동을 위한 일반적인 아동복지프로그램으로는 저소득층 지역의 학습공간 확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의식교육프로그램, 저소득층 지역의 문화공간 확보 등이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방임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빈곤지역 아동의 방과후 보호와 교육을 자원하기 위하여 공부방이 운영되어 왔으며, 2005년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된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회와 시설을 활용하여 이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는 교회와 기독교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성화되고 있다(박은미, 2005:107).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가파르게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종교기관들의 참여가 적극적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기능은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보육과 학업지원을 수행하는 것이다.

교회와 기독교인의 빈곤아동에 대한 아동복지 실천은 방임되고 있는 빈곤아동의 부모역할을 보완하여 빈곤아동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박탈과 소외를 방지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건전한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회와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빈곤아동 프로그램으로는 빈곤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을 들 수 있다. 어린이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교육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아동의 바람직한 인격형성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2) 학대받는 아동

아동학대라 함은 좁은 의미로는 신체적인 것에 국한되어 사용된다. 보호자가 어떠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아동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히며 완력을 사용하여 가해하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공격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비신체적인 정서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 성적 및 사회적 학대를 의미한다. 즉, 애정결핍에 의한 거부와 방임, 저조한 영양상태, 불충분한 의료적 보호조치, 위협적 언사, 조소와 적대감을 나타내는 말의 사용, 아동에게 필요한 오락 및 교육의 기회나 정서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금지와 성적 이용, 성폭력 등 양상이 다양하다. 특히 광범위한 사회적 학대는 유해한 오락이나 유흥업소의 번성 등과 같은 사회병리 현상과,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퇴폐 문화와 매스컴의 영향 등에 의해 발생한다. 그리고 사회관습과 법적 묵인 아래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낙태도 아동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사회적 학대의 하나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문제는 흔히 가정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이렇다 저렇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황폐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랑의 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폭력의 행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사회의 산물이다. 아동폭력은 한 가

정을 폭력의 도가니로 만들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그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며 폭력의 노예가 되어간다. 설혹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벼운 '손찌검' 일지라도 아동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가족관계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교육'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단순한 아동의 실수나 잘못을 폭력적 수단으로 체벌하는 것이 교육일 수 없으며 아동에 대한 구타가 훈육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는 사회적 관습도 남자아이의 폭력 행위를 씩씩하게 자라는 것으로 보며 여자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그릇된 양육태도를 낳게 했고 이것은 남자아이들의 이유없는 폭력행위를 정당화하였다. 이것은 아동이 성장한 이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한 방법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한 자녀들은 또래 집단이나 형제 사이에 비슷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며 그런 그릇된 행동이 가정 내에서와 같이 사회에서도 관용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오정수, 2008:347-348).

학대받는 아동의 범주에는 부모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아동,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아동, 미혼모에 의하여 유기되는 아동 등이 있다. 그리고 학대받는 아동의 범주에는 이미 세상에 태어난 아동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낙태되고 있는 아동도 학대받는 아동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

아동학대 문제에 접근하는 교회와 기독교인은 아동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기초로 출발해야 한다. 부모를 잃고 집이 없는 고아를 긍휼히 여기고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학대받고 유기되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약1 : 27)이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여 학대받고 유기된 아동을 돌보는 교회와 기독교인의 활동에 잘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교회 차원 또는 연합 차원에서 지역주민과 교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과 부모의 역할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회와 기독교기관을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아동폭력, 아동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억제하고 제거하며, 학대받는 아동들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미혼모에 의하여 유기되는 아동을 입양하는 운동도 교회와 기독교인은 실행할 수 있다.

낙태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낙태반대운동연합의 활동이 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생명주일 제정 등 교회 내 낙태반대운동, 언론기관을 통하여 낙태의 심각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생명윤리언론활동, 일반대중교육, 전문상담가와 강사를 훈련하는 전문가양성교육, 낙태예방캠페인, 생명사랑 문화행사, 전문가료영상물 제작배포, 위기임신여성 전문상담, 홈페이지 운영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풍조로 인하여 한국사회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낙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며 이를 반대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 개신교 내에서 활동해 온 10여개 단체들과 이 운동을 지지하는 15개의 기독교단체들이 힘을 모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낙태반대운동을 하기 위하여 1994년에 시작되었다(김현철, 2005:269).

3) 시설보호아동

아동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양육되며, 가정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임은 아동복지의 기본원리이다. 그러나 아동이 이러한 환경을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누릴 수 없거나, 가정에서의 양육이 오히려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보호조치로서 시설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다.

시설보호의 목적은 이와 같이 가정에서의 양육 욕구가 제대로 충족될 수 없는 아동들에 대해서 집단

보호와 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 즉 집단생활 프로그램이나 각기 아동의 욕구에 따르는 특수 서비스 등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데 있다. 시설보호의 목적은 단순한 수용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인격발달 또는 제반 문제행동의 교정 및 개선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보호를 통해서 ① 정상적인 아동의 성숙을 도와주며, ② 이전의 부정적 경험의 영향을 교정·변화시켜 주고, ③ 아동의 인격발달이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한 사회적·정서적 문제들을 개선해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설보호는 아동복지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 등 아동보호의 주류를 형성하여 왔으며, 교회와 기독교기관들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시설보호아동의 감소와 아동복지 욕구의 다양화로 시설보호의 기능이 전문화·다양화되는 추세에 있다. 아동을 위한 그룹홈, 장애아동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 등이 새로운 발전을 하고 있다. 이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이혼, 부모사망, 빈곤, 노숙 등에 기인한 가족해체로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제공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핌을 받고 장래를 준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대안의 양육체계인 가정위탁이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여 청소년들이 기존의 제도적 체계에 의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회의 사역은 가정의 파괴와 해체로부터 고난당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이지만 이러한 사랑이 결핍한 경우에는 교회나 주변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관심과 보호를 받을 때 그들의 삶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회복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지역 교회와 기독교기관들은 이렇게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아동 돌봄의 영역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오정수, 2008:350).

4) 지역사회 일반아동

역사적으로 지역사회 일반아동을 위하여 아동복지 실천현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로는 상담실,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쉼터, 공부방, 그룹홈, 생활시설, 대안학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새터민 청소년, 다문화사회에서의 자녀 문제나 한부모가족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 등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래상담이나 자원봉사자 등으로 사회복지분야에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일반아동을 위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아동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을 위한 건전한 기독교 문화의 창달, 쉼터의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쉼터는 아동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보호와 숙식제공, 상담 선도활동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역교회의 시설 개방화를 통하여 도서관, 방과후 공부방의 운영, 학습지도 등을 행할 수 있다.

3. 교회와 기독교인의 역할

1) 단계별 실천과제 기획 설정

교회와 기독교인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아래 <표 1>에 있듯이, 각 단계별 실천 과제에 따른 기획을 설정하는 일이 우선 필요하다.

<표 1> 단계별 실천 과제

단계	실천 과제
준비단계	교회 내 자원조사와 지역사회 욕구·자원 조사, 여론화를 통한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 교회 조직정비, 아동 돌봄 사업에 대한 목표설정과 기획
시작단계	교회 인적·재정·시설·물질·조직·정보자원 동원, 직원훈련, 단순 프로그램 실시
활동단계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실시와 정착
확대단계	프로그램 평가, 사회복지 전문가 채용을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화, 교회부설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

특히 전체 단계에서 볼 때, 아동 돌봄에 교회와 기독교인 자원을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획(planning)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기획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래 행동에 관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러한 기획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이유로는 (1) 기획은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며, (2) 기획은 합리성을 높일 수 있으며, (3) 기획은 하나님을 향한 사업수행에 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으며, (4) 기획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자의 폭을 넓혀 줄 수 있기 때문이다(York, 1982).

2) 가족복지사업의 강화

아동을 위한 일차적인 돌봄의 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가정이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아동 돌봄은 가정에서 비롯된다.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고 위기의 가정을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늘날 사회의 희망은 가족생활에 성경적 개념을 회복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안정되고 건강한 가족생활은 사랑, 은혜, 능력부여, 친밀감을 포함하는 가족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회복시키고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교회와 기독교인의 아동 돌봄을 위한 기본적인 중추적 역할은 가족복지의 강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복지사업은 교회 안의 교인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웃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에 교회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가족복지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 자원을 잘 활용하여 (1) 개교회 차원에서 '가족복지부'를 두어 교인의 모든 가정을 돌보고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야 하며, (2) 지역회, 연합회, 혹은 교단 차원에서 가족복지 전담기구를 두어 총체적인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교육, 훈련,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재정 지원 등의 사업을 해야 하고, (3) 교단 차원에서 가족문제를 야기하는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각종 사회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사회행동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4) 앞으로의 민족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간 민족 대이동으로 인하여 생겨날 가족생활의 대 혼란을 염두에 두는 기독교 공동체적 대책을 갖추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조홍식, 2000). 아울러 다문화사회가 급속히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회와 기독교인은 다문

화가정 자녀들의 돌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아동 돌봄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교회와 기독교인이 아동 돌봄 활동을 실시하려고 할 때, 각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참작하여 다양한 유형의 돌봄 아동대상자들 가운데 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홍보함으로써 교인들에게 자원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분명하게 설득시켜야 한다.

돌봄 프로그램은 첫째로 교회의 신앙적 성격에 따라 개인과 가족을 위한 구호 활동을 시행할 수도 있고 사회정의의 위한 사회행동 활동을 주로 할 수도 있다. 둘째로 프로그램은 시설의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 아동과 청소년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셋째로 농촌지역, 도시 중산층 주거지역, 도시 빈민층 밀집지역, 상업지역, 학교지역 등 그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넷째로 교인들의 교육수준과 생활수준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전문인 집단이 형성 되어있는 교회와 노동계층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 또 서민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있는 교회 등 이들이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유장춘, 1999).

참고로 각 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교회가 실시할 수 있는 아동 돌봄 프로그램

도시교회	대형교회	실직가정지원 프로그램, 실직자 가정 급식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 장학사업, 청소년 상담, 보육시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신문 제작, 근로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야간학교, 가출아동 공동체 건립과 운영, 소년소녀가장돕기 캠페인, 청소년을 위한 금연캠페인, 결식아동 도시락 보내기, 청소년 컴퓨터지도, 무료 직업상담, 장애아동 그룹홈 운영, 교회시설개방 등
	중형교회	실직가장 직업알선사업, 실직자가정 자매결연, 비행청소년 상담지도, 불우청소년 지도, 어린이 공부방, 무의탁아동 돌 사진 찍기, 빈곤여성가구주 한글교육, 장학사업, 빈곤가족 반찬지원과 이·미용사업, 중증장애아동 나들이 보조, 교회시설개방 등
	소형교회	정부 사회안전망 연결프로그램, 불우청소년 결연, 빈곤가정 가족들과 말벗하기, 가사활동지원, 후원자 개발관리 보조, 아동복지시설 방문과 자원봉사 등
농촌교회	귀농가정 지도세미나, 귀농자 자매결연사업, 조손가족을 위한 돌봄 사업, 교회시설개방, 불우청소년결연, 어린이 공부방학습지도, 어린이 한자교실지도, 어린이집운영, 자연학습장 만들기, 지역신문제작, 환경교육, 가정결연, 장애아동 외출보조, 청소년 지역봉사활동 등	

4) 학교 내 선교와 학교사회복지활동의 전개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공간 중 가장 핵심적인 장이 학교이다. 학교내에서 아동들이 따돌림을 받거나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학교내 선교활동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학교사회복지활동이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에 입각하여 빈곤아동, 학대아동, 학습부진아동 등을 도울 수 있도록 지역교회가 학교사회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오정수, 2008:355).

5) 교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

기독교사회복지조직의 네트워크 구성

아동복지 차원에서 기독교인과 교회의 아동입양운동, 가정위탁운동, 낙태반대운동 등 기독교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네트워크 구축은 모든 분야 발전의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모든 조직은 폐쇄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질적이고 양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개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수준과 전국적인 수준에서 연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활동은 이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뿐이 아니다. 교회와 지역 내의 사회복지기관간의 네트워크도 필수적이다. 교회와 지역 내의 사회복지기관은 모두 돌봄이 필요한 아동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간의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면에서 서로 일치한다. 그러나 교회는 지역복지 활동에서 그 동기와 정신, 그리고 지역적 토착성과 시설, 자원동원이라는 면에서는 큰 강점을 갖고 있으나 전문성에 큰 한계를 갖고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기관은 아동복지 방법론의 전문성과 합법성(합목적성), 그리고 프로그램과 제도적 지원, 아동복지 상징성에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을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시설과 인력 그리고 자원동원에 큰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기독교 신앙 정신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기관과의 연합을 모색해야 하고, 사회복지기관은 복지 프로그램 확산과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동원이라는 명제 아래 교회와의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유장춘, 1999).

이러한 교회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회 간에 활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단의 지역 협의체 같은 곳에서 해당 지역사회의 지역복지기관과 연합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한편, 각 교회의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중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회 아동 돌봄 활동이 종단간의 연합 또는 다른 복지 단체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면 아동 돌봄 문제 해결에 더욱 이바지하게 되고, 결국 종교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고취시킴으로써 전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조홍식, 2000).

〈참고문헌〉

- 강명순. 2005. “교회의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의 실제.”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05].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조직위원회.
- 김상균·조홍식 외 7인. 2007. [사회복지개론](개정2판). 나남출판.
- 김현철. 2005. “낙태반대운동을 위한 교회의 소명과 전략적 과제.”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05].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조직위원회.

- 박은미. 2005. “빈곤청소년을 위한 교회사회복지프로그램과 운영의 실제.”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05].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조직위원회.
- 오정수. 1991. “성경적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 원리.” [통합연구] 통권11호. 통합연구학회.
- 오정수. 2008. “아동과 기독교사회복지.”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유장춘. 1999. “1999년 교회사회봉사 부분 목회계획수립을 위한 워킹 - 교회사회사업적 측면에서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대전 서노회 사회부 주최 워킹자료집].
- 장인협 · 오정수. 2000.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출판부.
- 조홍식. 2000. “교회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부 사회복지대회자료집].
- York, R. O. 1982. *Human Service Planning: Concepts, Tools, & Methods*, Chapel Hill, NC: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필자: 曹興植 교수 (영문) Heung-Seek CHO

(현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한기독교장로회(통합) 개봉교회 장로/ 한국군(軍)사회복지학회 회장/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국무총리실 농림임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 단장/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군인복지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최근 주요 저서)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공저, 학지사, 2010)
- 사회복지실천론(공저, 나남출판, 2009)
- 교회자원봉사(공저, 공동체, 2009)
- 인간생활과 사회복지(학지사, 2008)
-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편찬위원장, 2008)
- 한국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공저, 나눔의집, 2007)
-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공저, 서울대출판부, 2007)
- 사회복지개론(공저, 나남출판, 2007)
- 가족복지학(공저, 학지사, 2006)
- 여성복지학(공저, 학지사, 2006)
- 비교빈곤정책론- 빈곤과 빈곤정책의 동향에 관한 국제비교(공저, 나남출판, 2005)

“기독교 가정 위탁 성공사례”

_ 강미희 팀장(한국수양부모협회)

빈곤방임아동을 위한 야간보호사업의 필요성 및 현황



이 경 림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야간보호사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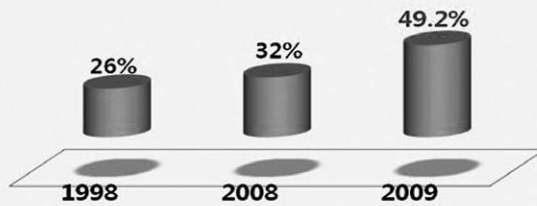
목 차

- 1 야간보호의 필요성
- 2 공적 전달체계의 야간보호사업 현황
- 3 민간 전달체계의 야간보호사업 현황
- 4 야간보호사업의 향후 과제

야간보호 사업의 현황 01 야간보호의 필요성

야간보호의 필요성

● 도시근로자 맞벌이 가구 증가



(통계청, 2010)

3

야간보호 사업의 현황 01 야간보호의 필요성

야간보호의 필요성

● 빈곤층 아동 저녁식사 이후 야간방임현황

- 거의 매일 어른없이 혹은 형제자매끼리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2009)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50%는 저녁 6시 이전귀가



(보건복지부,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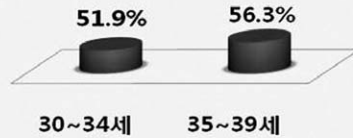
4

야간보호의 필요성

- 야간방임 시 사회적 문제 발생
 - 2007 안양 예술혜진 실종살해 사건, 오후 5시 이후 행방불명 혹은 형제자매끼리 있는 경우
 - 2010년 부산 김길태 납치살인 사건, 저녁 9시

- 야간보호가 필요한 시간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현황



(통계청, 2009 한국인의 생활시간 조사)

- 평균 퇴근시간 6-7시 30분이 가장 많고, 평균이동시간은 1시간 26분이므로 저녁 9시까지 야간보호가 필요함

5

야간보호사업 현황

- 현재까지 야간방임아동 및 야간보호사업에 대한 정확한 규모가 조사된 적이 없음

- 야간 보호사업의 정의

방과후 야간에 보호자 없이 홀로 방임되는 빈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교육 서비스로 저녁 6시 이후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야간보호사업이라고 봄.

(모금회 아동청소년야간보호사업 기준)

6

우리나라 야간보호사업 구분

공적 체계	교육과학기술부	종일돌봄교실 야간돌봄전담유치원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시간연장형보육
	여성가족부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민간 체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동청소년 야간통합지원사업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1318해피존
	삼성사회연대은행	야간보호지원사업

7

종일돌봄교실

- 각 학교마다 설치된 초등보육교실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저녁 9시까지 연장하여 서비스를 제공.
- 2010년부터 모든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확대 운영
- 2011년 모든학교 1개이상 설치 계획
- 사업내용
 -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 수 및 운영시간 확대
 - 설치비(3,000~4,000만원), 시설개보수비(500만원) 확보/지원
 - 야간 돌봄교실 관리인력 및 전담강사 처우개선비 지원
 - 저소득층 학생 석식비 및 기타 운영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자유수강권 지원

8

종일돌봄교실

● 야간보호현황

종일돌봄교실 운영현황 (2009. 9. 1)

구분	총 학교수	학교수(개)	설치율(%)	학급수(개)	학생수(명)
계	5,813	354	6.1	385	6,759

● 사업재정 - 지난 3년간 약 2.5배 증가

구분	총 예산	학급당 지원금	아동단가
종일돌봄교실 (2009)	14,913,039(천원)	38,735,166원(천원)	2,200,861원 (월 19만원)

9

야간돌봄전담 유치원

- 저녁 7시까지 종일제 이용 후 야간돌봄전담유치원으로 이동하여 9~10시까지 보호. 3-5세 유아
- 사업현황 : 전국 181개소, 약 3,000명의 아동 보호
- 전담유치원 설치.환경의 안정성, 책임성 강조
- (교사대 아동 1:10, 유치원+어린이집 협력)
- 사업재정
 - 시범사업기간에는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 '10. 9월 이후부터 시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에 반영하여 실시
 - 기관당 지원액 : 월 250만원 (급간식비 수익자 부담)
 - 아동1인당 지원금 : 월 12.5만원(기관당 20명 이용 시)

10

지역아동센터

● 야간보호현황 (2009.12.31 기준)

저녁 6시 이후 운영	2,085개소 (전체 시설의 87.3%)
저녁 8시 이후 운영	999개소 (전체 시설의 30.5%)
야간보호를 받는 아동수	2,805개소 x 7.85명=약 21,879명(문닫는 시간 기준, 추정치)
	999개소 x 7.85명=약 7,792명(저녁8시 이후 운영기준, 추정치)

● 사업현황

구분	1개소당 평균 정부보조금			지역별 별도 지원금		
	센터수	1년 평균	1개월평균	센터수	1년평균	1개월 평균
합계	2,747	33,157,898	2,763,158	1,333	5,368,747	447,396

- '09년 2,747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월평균3,210,554원(급식비 미포함) 지원받았으며, 아동1인당 지원금은 월 11.3만원 수준임

11

시간연장형 보육

- 시간연장형 보육과 24시간 보육 : 기준보육시간(오전7:30~저녁7:30) 경과하여 최대 저녁 12시까지/24시간 동안 보육만 7세 이하 아동
-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함.
- 정부지원시설은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지원
- 민간보육시설은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 지원
- 시작시간 이후 보육아동 3명 이상 보육할 경우 최대 3명까지 인건비 지원, 9시 이후 아동이 한명이라도 있을 경우 교사인건비 지원
- 교사 대 아동비율 1:5 (유아만일 경우 1:7까지 가능)
- 24시간 보육아동부모는 최소 주1회 가정보호하며 상시적으로 보육시설과 연락체계 유지. 주 3회 부모와 연계서비스 진행

12

시간연장형 보육

● 시설현황

구분	시설수	보육아동현황		종사자현황				
		현원	시간연장현원	계	시설장	시간연장보육교사	그 외	기타
시간연장	4,666	196,374	22,848	37,778	4,667	3,778	24,775	4,558
24시간	138	6,636	520	1,629	138	120	1,093	278

● 지원현황

- '09년 기준 5,000명의 인건비 36,105백만원 지원되어
- 총 23,368명 아동보호
- 아동 1인당 지원금 : 연 1,545,061원(월 12.9만원)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

● 참여대상

- 초등4-중등2학년 아동 오후 3시-저녁9시까지 이용
- 시설당 40명(20명x2반), 60명(20명x3반), 30명(30명x1반) 보호

● 운영과정(유형별, 수준별 과정)

- 일반형 vs 지원형 vs 혼합형/수련시설중심형 vs 지역연계형

● 사업현황

구분	개소	구분	개소
청소년수련관	100	지원형	174
청소년수련원	4	일반형	2
청소년문화의집	51	혼합형	2
기타	23	합계	178
합계	178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

● 이용청소년 현황

년도	초등학생				중학생			총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소계	
명수	1,270	2,447	2,250	5,967	654	548	1,202	7,169

● 사업재정

- 2009년 180개소 → 2010년 160개소
- 개소당 지원단가 : 154백만원/년(전년 동)
- 초등학생 30명 1개반 예산산출표 : 연94,625천원/월7,885,417원
- 아동1인당 지원금 : 월 262,847원
- 인력 : 프로그래매니저, 스케줄매니저 2인

15

아이돌보미지원사업

-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하는 시간제 돌봄서비스로 건강가족지원센터 전달체계

● 이용가정 및 아동

- 0세(만3개월)~만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 소득수준 및 이용아동에 따라 다른 이용요금 적용

● 현황

- 전국 321개 시도센터, 7,729명의 아이돌보미 활동('09년 기준)
- 월 40시간 이용 가능함(양육돌보미, 학습돌보미)
- 전체 연계건수 951,927건 중 85.7%(가형 : 70.2%, 나형 : 15.5%)가 전국소득 100%이하 가정으로 저소득가정 보육지원의 한 형태임을 증명함

16

아이돌보미지원사업

● 야간보호현황 (추정치)

구분	오전1 4~8시	오전2 8~12시	오후 12~16시	저녁 16~20시	심야1 20~24시	심야2 24~04시	계
누계(명)	41,267	221,251	274,525	352,395	58,230	4,250	951,927
비율(%)	4.34	23.24	28.84	37.02	6.12	0.45	100

- 오후 6시 이후 ~ 익일 오전 8시 야간보호 연계건수
- 총 279,954건으로 전체의 29.4%
- 야간서비스 이용아동수 3,153명(10,725명 중29.4%적용)

● 사업재정

- '10년부터 여성가족부 사업이관으로 사실상 지원축소 및 서비스이용제한

공적체계 내 사업비교표

구분	사업개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업주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업명	종일돌봄 교실	야간돌봄 전담유치원	지역아동 센터	시간연장형 보육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사업배경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내 아동의 교육복지 실현 -방과후학교 실현	-맞벌이 부부 육아부담 완화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교육과 복지 의 통합서비 스 제공	-취업모의 보육부담 경감 -경제적 활 동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가 정보육환경 제공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 과후활동을 통한 공적기 능 강화	-긴급/일시적 돌봄서비스 제공 -시설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보호제공
사업내용	-초등돌봄 교실 설치 -보육과 교 육 서비스 제공	가정과 같은 돌봄서비스 제공	보호, 학습 지도, 문화 체험, 상담, 지역사회 연 계 등 복지 서비스 제공	시간연장형 시설을 지정 하여 가정과 같은 보육서 비스 제공	청소년의 활 동, 보호, 복 지, 지도를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제공 -보육/학습 아이돌보미 양 성

야간보호 사업의 현황 02 공적전달체계의 야간보호현황

공적체계 내 사업비교표

구분	사업개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업명	종일돌봄교실	야간돌봄전담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시간연장형보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대상	초1~3학년	만3~만5세	18세미만	만7세 이하	초등4~중2	0세(3개월이상)~만12세미만
시설활용	학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아동의가정
사업경과	'09년 9월~	'10년 3월~	'04년~(법제화)	'96년~(최초의 운영지침발견)	'05년~	'06년 2월~
야간보호아동수	6,759명	3,000명	21,879명	23,368명	7,169명	3,153명

야간보호 사업의 현황 03 민간의 야간보호사업 현황

민간체계 내 야간보호사업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복공감별빛교실'
2.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1318 해피존'
3. 삼성사회연대은행 '야간보호지원사업'

민간체계 내 사업비교표

구분	사업개요		
사업주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스리기사랑나눔회	사회연대은행
사업명	행복공감별빛교실 (아동청소년야간보호사업)	1318해피존	야간보호지원사업
사업배경	-야간방임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교육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창출	-빈곤청소년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 설치/육성 시급 -모델사업으로의 정책견인화 요구	-'06년 자체 실태조사 결과 공부방 보호아동 중 야간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23%로 나타남 -야간보호사업에 필요한 요소,인력, 예산 지원
사업내용	기초학습지원, 정서지원, 가족 관계 강화 프로그램, 귀가지원	지식, 문화, 안전, 정보 4대 영역 7개 프로그램 지원 (통합복지서비스제공)	-영양가 있는 간식제공 -Family Wellness, Fit Brain 등 전문프로그램 제공 및 실시

민간체계 내 사업비교표

구분	사업개요		
사업주체	모금회	부스리기사랑나눔회	사회연대은행
사업명	행복공감별빛교실 (야간요보호아동통합지원사업)	1318해피존	야간보호지원사업
수행체계	중앙모금회-16개 시도 지회-각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SK, 부스리기사랑나눔회	-삼성사회공헌단-사회연대은행-29개 지역아동센터-수퍼바이저 파견, 사업관리 및 교육, 슈퍼비전 제공
야간보호시간	저녁 6시~10시까지 (최소 4시간 이상)	오후 3시~10시까지	저녁 6시~10시까지 센터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대상	-저소득가정 아동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70%이하)	중, 고등학생, 탈학교의 1318세대	방과후 장시간 야간보호가 필요한 초등학생
시설활용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시설	지역아동센터 설치 가능한 지역사회 밀착형 공간	공부방(지역아동센터)

야간보호 사업의 현황 02 민간의 야간보호 사업 현황

민간체계 내 사업비교표

구분	사업개요		
사업주체	모금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회연대은행
사업명	행복공감별빛교실 (야간요보호아동통합지원사업)	1318해피존	야간보호지원사업
사업경과	'06년 ~ 현재	'06년 7월 ~ 현재	'07년 7월 ~ '10년 2월
사업비	-야간보호교사 인건비, 당직교사 수당, 프로그램비 등 지원 -교사교육비, 사업모델 개발 및 연구 성과 평가 비	공간지원비, 시설운영비, 교사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사업전반에 걸친 지원	-사업비(간식비) -인건비보존비 -시설개보수비, 지역활동비 등
총사업량	1,597개소(5년간)	34개소(3년간)	45개소(2.5년간)
총 사업비	377.5억 원(5년간)	91억원(3년간)	16억원 7870만원(2.5년간)

야간보호 사업의 현황 03 민간의 야간보호 사업 현황

민간체계 내 사업비교표

구분	사업개요		
사업주체	모금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회연대은행
사업명	행복공감별빛교실 (야간요보호아동통합지원사업)	1318해피존	야간보호지원사업
야간보호 아동수	8,660명	1,607명(2009년)	911명(2.5년간)
재정지원	복권기금/년 2,364만원	SK/ 13,600만원(3년)	삼성/ 연 3,730만원
아동단가	월 11.9만원	월 48.5만원	월 15.4만원
교사급여 수준	월 832,000원(야간보호교사)	-센터장 1,363,943원 -실무자 1,135,000원	월 50~70만원(담당교사)
교사교육	- 평균 24시간(년)	- 약 40시간	-월 1회 정기교육 - 월 1회 슈퍼비전

② 민간사업정리 및 분석

1. 모금회사업의 의의와 한계

- 민간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로서 지난 5년간 지속하여 야간보호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의 타당성 입증
- 지속적으로 지원액이 감소되도록 설계됨
 - 외부지원없이 사업운영이 어려워 사업종료 경향 많음
 - 정부사업으로의 전환필요
- 야간방임아동 지원과 지역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과과정에서 사업의 효과성 감소 경향

25

② 민간사업정리 및 분석

2. 사회연대은행 사업의 장점과 사업종결

- 2년 6개월간 시범사업 진행 후 사업종결
- 자기관리능력/학습능력/학교생활적응/또래관계능력 등 4대 목표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모두 향상됨
- 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먼저 지원한 후 야간방임아동의 특성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
- 슈퍼바이저를 파견하여 현장밀착형 사업관리 및 아동지원

26

**** 야간보호 사업의 현황

02 민간의 야간보호사업 현황



민간사업정리 및 분석

3.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 구축

- 13~18세 빈곤청소년 통합지원하는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 구축 및 모델화 : 이용자 전원이 야간보호 받음
- 센터자립을 염두해 두고 연도별 사업계획/지원수준 결정
 - 지역사회 밀착형 청소년 복지시설로 자리매김
- 이용자 전원이 청소년임으로 저녁 10시까지 야간보호를 통합적인 센터 기본사업으로 진행
- 이용자가 청소년이라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야간보호로 이어짐
 - 야간보호기능수행에 긍정적/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는지 분석필요

27

**** 야간보호 사업의 현황

03 민간의 야간보호사업 현황



민간사업정리 및 분석

- 총 10,267명의 아동 보호
- 순수 민간사업 보호아동, 약 1,000명
- 지역아동센터를 기반으로 실시된 사업
- 1318해피존의 지원수준이 월 48.5만원으로 가장 크지만 야간보호사업만을 위한 지원이 아닌 청소년전용센터 구축 모델화 사업으로서 이상적인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짐
-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16~17만원(급식비 포함)을 포함하면 모금회는 월 30만원, 사회연대은행은 월 32~35만원 지원수준
- 적절한 아동보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교사의 역량강화와 교육에 주안점을 둠

야간보호사업의 향후과제



야간보호이용 아동수 확대

- 우리나라 야간보호 아동수 : $63,175명 + \alpha$
 - 공적체계 내 : $62,175명 + \alpha$ (아이돌보미지원사업)
 - 민간체계 내 : 약 1,000명
- 야간보호비율
 - 야간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빈곤/방임아동의 약 5%에 해당하는 아동만 보호받고 있음

야간보호이용 아동수 확대

- 빈곤 아동수 대비 야간보호율



전체의 4.6%

- 방과후지원 필요 아동수 대비 야간보호율



전체의 5.4%

31

야간보호사업의 향후과제



32

서비스 전달체계간 조율과 통합

- 유사사업 간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
 - 서로 소통하지 않는 체계로 인한 지역별 편중/사각지대 발생
→ 방과후 및 야간보호 시설의 추가설치 필요
- 해결방안
 - 시설설치시 이미 설치된 유사사업과 긴밀한 협조체계구축
 - 기능이나 역할을 특화하는 방안 고려
(ex) 야간돌봄전담 유치원 : 어린이집 아동 10%이용

야간보호사업의 향후과제



야동 대상화 문제 극복

● 현행 야간보호사업의 목표 분석

맞벌이부부 양육부담 감소, 빈곤소외계층 아동에게 부족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공교육의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
→ 아동의 지지체계(부모 또는 학교)를 위한 보충적 서비스 제공

-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사업 시행
- 아동에게 결핍된 것을 보충하고자 하는 서비스
- 존재 자체로서 보호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존재임

35

야간보호사업의 향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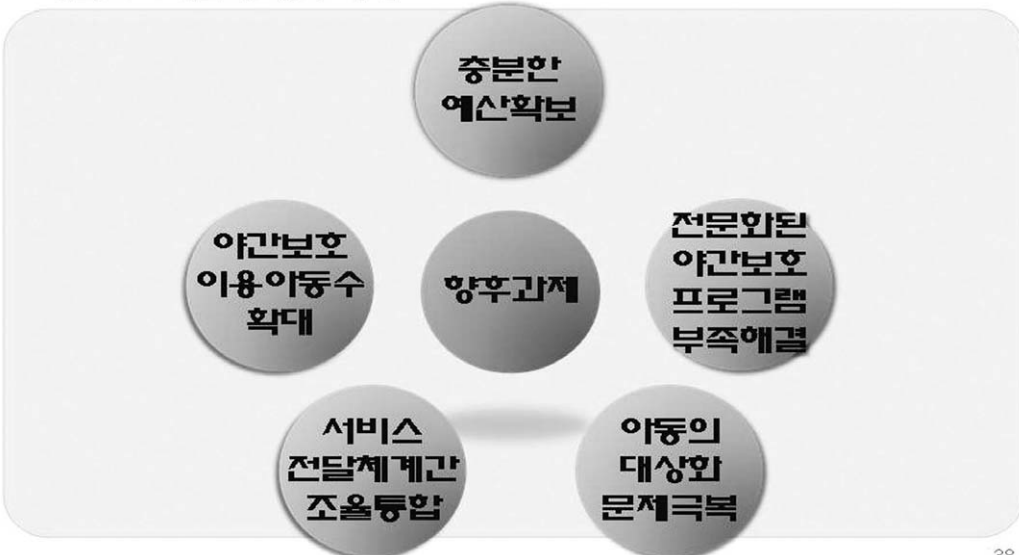


36

☞ 전문화된 야간보호 프로그램 부족 해결

- **현행 야간보호사업의 목표 분석**
 - ‘가정과 같은 돌봄 서비스’를 사업내용으로 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는지 명시 없음
 - 야간방임아동의 특성에 맞고, 하루일과의 연장선상에서 고려되며, 아동이 필요로 하는 전문 프로그램 개발
 - 가정과의 연계 중요
 - ex) 24시간 어린이집 : 시설보호 예방 vs 준비
 - 대리적 서비스가 아닌 지지적 서비스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야 함

☞ 야간보호사업의 향후 과제



중분한 예산확보

● 정부지원 유사사업 지원비교표

사업주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업명	종일돌봄교실	야간돌봄전담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시간연장형보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정부지원	월32.3만원	월250만원	월321만원	월65만원	월789만원	아동가족유형별지원
아동단가	19만원 -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비 일부지원	12.5만원 -급간식비 수익자 부담	11.3만원 -급식비 별도지원/ 19만원	12.9만원 -수익자 부담 별도	26.3만원 -유형별 수익자 부담 별도	유형별 수익자 부담 별도

39

중분한 예산확보

- 유사 사업 간의 지원의 차이
 - 아동에 대한 차별적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조정필요
 - 종일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도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와 같이 운영비 상향지원 필요
 - 야간돌봄전담유치원은 지자체로 사업이관/사업확대 시 적절한 예산확보가 관건
 - 시간연장형 보육은 수익자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책임교원 수는 교사의 소진 및 아동안전과 직결되므로 정부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40

교회와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례

발 표 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강북지역아동센터
대표 이돈주 목사

목 차

I. 지역아동센터 전체 현황

1. 지역 아동 센터 일반 현황	40
2.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시간 현황	41
3. 지역 아동 센터 급식 현황	41
4. 지역 아동 센터 아동 이용 수 특성 및 이용 실태	42
5. 지역 아동 센터 종사자 현황	43
6. 지역 아동 센터 종사자 현황	44
7.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주체 현황	45
8. 지역 아동 센터 국고 보조금 지원 현황	46
9. 지역 아동 별도 (운영비외) 지원 현황	48
10. 지역 아동 센터 자원 봉사자 및 일자리 현황	49
11. 지역 아동 센터의 재정 현황	51
12. 지역 아동 센터 중점 프로그램	52

II. 지역 아동 센터 기독교 현황

1. 일반적 현황	53
2. 개별 교회와 지역아동 센터와의 관계	53
3. 지역 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 인식	54
4. 소속 교단과의 관계	54
5.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 효과	54
6. 지역 아동 운영 현황	55
7. 재정 및 회계상의 특징	55
8. 시설 및 설비상의 특징	55
9. 종사자의 특징	56
10. 지역 사회와의 관계	56
11. 프로그램 운영	56
12. 제도적 개선 및 교단 희망 사항	57
13. 교회에 의한 지역 아동센터 운영의 장단점	57
14. 목회자 운영 여부에 따른 특징	58
15. 기독교 지역아동센터의 발전 방안	58

I. 지역아동센터 전체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지역 아동센터 주관
전국 지역 아동센터
실태 보고서 기준 발췌)

1. 지역 아동 센터 일반 현황

2009년 12월 현재 조사된 지역아동센터는 총 3,474개소이며, 이용 아동은 총 97,926명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의 경우, 개인은 53.9%(1,873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교단체 21.2%(737개소), 사회복지법인 9.3%(324개소), 재단법인 6.8%(23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법제화 이전, IMF경제위기 이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147개소(4.2%)에 불과하였으나, 법제화 이후 2004년-2007년 사이에 개소된 센터가 1,834개소(52.8%)로 법제화 이후에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 위치한 층수는 지상 1층이 41.8%(1,45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상 2층이 38.1%(1,321개소), 지상 3층이 14.2%(492개소)로 나타났다. 시설의 전체 면적의 경우, 106-165이 39.5%(1,372개소)로 가장 많고, 82.5-106인 경우가 25.7%(893개소), 60-82.5이 8.1%(279개소)순으로 나타났고, 법적기준 미달인 60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0.3%(12개소)로 조사되었고, 특히 60-82.5의 경우, 신고정원 수가 20명 미만인 207개소(5.9%)를 제외한 72개소(2.1%)는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 센터 소유형태는 월세가 1,391개소(40.0%)로 가장 많았고, 무상 임대 879개소(25.3%), 자가 664개소(19.1%) 순을 나타냈다. 건축물용도는 근린생활 1종시설이 2,460개소(69.3%)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근린생활 2종 시설 479개소(13.8%), 단독주택 250개소(5.9%)순으로 나타났고, 집단 지도실, 사무실, 식당*조리실, 화장실은 전용공간으로 대부분 센터에서 마련하고 있었으며, 평균 면적은 각각 58.8, 18.0, 26.4, 12.1으로 나타났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센터는 3,425개소(98.6%)이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센터는 3,380개소(97.3%)로 나타났다.

2.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 현황

주간 운영일수는 일주일 중 5일 운영하는 경우가 63.1%(2,195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6일 운영하는 경우가 31.8%(1,104개소)로 나타났다. 여는 시간은 10시 이후~11시 이전이 40.3%(1,402개소)로 가장 많았고, 닫는 시간은 19시 이후~20시 이전이 32.9%(1,143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루 운영시간은 8시간 이상~9시간 미만인 경우가 30.4%(1,056개소)로 가장 많았고, 8시간 미만인 경우도 2.7%(94개소)로 나타났다. 토요일에 매주 운영하는 경우가 27.7%(962개소)로 가장 많았고, 격주로 운영하는 경우도 23.4%(812개소)로 나타났다. 공휴일에 운영하는 센터의 경우는 전체의 9.1%(315개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사시에만 운영하는 경우가 61.3%(2,131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시 이후 야간운영을 하는 센터는 55.0%(1,909개소)로 나타났다.

3. 지역아동센터의 급식현황

급식을 실시하는 센터는 총 3,304개소(95.1%)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실시하는 센터는 2,973개소(85.6%)로 조사되었다. 현재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센터도 170개소(4.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총 3,150개소(90.7%)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학기중과 방학중 모두 급식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2,841개소(81.8%)로 조사되었다. 급식비 미지원 센터 중 학기중과 방학중 모두 급식을 실시하면서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센터가 132개소(40.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기 중에만 급식을 실시하는 센터 15개소, 급식인원수는 413명이며, 이 중 급식지원을 받는 기관수 11개소,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동수는 313명으로 조사되었고, 방학 중에만 급식을 실시하는 센터는 316개소, 급식인원수는 7,708명이며, 이 중 급식을 지원받는 기관수 298개소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동수는 6,235명으로 조사되었다.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은 총 2,973개소이며,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지원을 받는 센터수는 2,575개소로 조사되었다. 전체 학기 중 급식인원 81,914명 중 급식비를 지원받는 아동수는 64,717명(79.1%), 방학

중 급식인원 88,611명 중 급식비를 지원받는 아동수는 77,673명(87.7%)으로 나타났다. 학기 중에만 급식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16개소, 평균지원금은 3,188원이며, 방학 중에만 급식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559개소, 평균 지원금은 2,988원으로 나타났다.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센터는 2,575개소로 평균지원금은 3,273원으로 나타났고, 급식비 미지원기관은 324개소로 나타났다.

4.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수, 특성 및 이용실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39,052명(남 19,628명, 여 19,4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38,032명(남 18,733명, 여 19,299명), 중학생 13,600명(남 6,780명, 여 6,820명), 미취학아동 4,838명(남 2,448명, 여 2,39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중고생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 센터수는 1,177개소이며, 중고생만 이용하는 센터는 48개소로 나타났다. 초중고생 혼합이용인 경우, 이용청소년이 개소당 5인 미만인 센터가 982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5~10인 미만인 센터가 759개소로 나타났다. 경제상황별로 차상위(저소득)아동 31,792명(32.5%), 수급권아동 27,191명(27.8%), 일반아동 21,417명(21.8%), 기타승인아동 17,526명(17.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형태별로는 양부모가정 57,884명(59.1%), 모자가정 18,292명(18.7%), 부자가정 11,898명(12.1%), 조손가정 7,165명(7.3%)으로 나타났고, 소년소녀가장과 친척 및 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도 각각 673명(0.7%), 2,014명(2.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아버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30,867명(31.5%)으로 가장 많고, 양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29,074명(29.7%), 어머니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21,017명(21.5%)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의 아동도 11,535명(11.8%)로 조사되었다. 장애아동이 있는 센터는 총 1,288개소로 그 중 센터당 장애아동이 5인 미만인 경우가 1,213개소(94.0%)로 가장 많았고, 다문화아동이 있는 센터는 총 1,193개소로 그 중 센터당 다문화아동수가 5인 미만인 경우가 1,023개소(85.5%)로 가장 많았다.

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현황

지역아동센터 총 종사자 수는 7,784명이며, 이 중 시설장은 3,474명이고, 이 중 남자가 1,441명(41.5%), 여자가 2,033명(58.5%)로 나타났다. 전체 생활복지사는 4,310명이며 이 중 남자생활복지사는 529명(12.6%), 여자생활복지사는 3,781명(87.7%)로 나타났다. 신고정원수 10인 미만 시설은 총 127개소로, 생활복지사가 없는 경우는 115개소(90.5%)이고, 생활복지사가 1인인 경우는 11개소(8.6%)로 나타났다. 법정종사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신고정원수 10인 이상~3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생활복지사가 없는 40개소(1.5%)가 해당되며, 30인 이상~50인 미만 시설의 경우는 생활복지사가 없는 1개소(0.1%), 생활복지사가 1인인 68개소(9.4%)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이상의 시설의 경우, 법정종사자 기준에 미달하는 센터는 생활복지사가 2인인 8개소(42.1%)로 나타났다.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모두 1년 이상~3년 미만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각각 26.4%(916명), 34.0%(1,466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시설장은 3년 이상~6년 미만이 24.0%(833명), 경력이 없는 경우가 22.7% (790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복지사는 1개월 이상~1년 미만이 22.6%(977명), 경력이 없는 경우가 21.8% (940명)순으로 나타났다.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종사자도 시설장 12.0% (416명), 생활복지사 5.1%(220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만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이 전체의 63.0%(2,195명)로 가장 많았으며, 2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도 전체의 33.6%(1,163명)로 나타났다. 생활복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전체의 42.3%(1,822명)로 가장 많았으며, 2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생활복지사도 전체의 35.3% (1,517명)로 나타났다. 시설장의 경우, 운영기획이 전체 응답의 17.6%(3,294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인력관리 16.3%(3,041명), 지역사회연계 13.7% (2,566명)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복지사의 주요직무로는 아동지도가 전체 응답의 24.7%(4,023명)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상담 18.8%(3,065명), 사례관리 16.4%(2,677명) 순으로 나타났다. 상근하는 시설장은 94.7%(3,290명)이고, 비상근은 5.3%(184명)로 나타났으며, 상근하는 생활복지사는 전체의 97.1%(4,175명)로 조사되었다. 근무시간은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모두 8시간~9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각각 69.8% (2,411명), 79.1%(3,396명)로 가장 많았고,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가 25.3% (879명)로 나타났다.

6. 종사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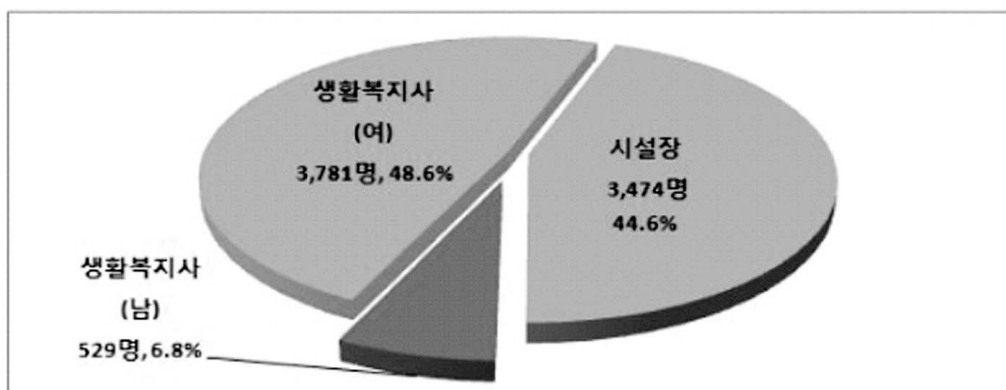
종사자현황

(단위 : 명, %)

종사자총인원	시설장			생활복지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7,784 (100.0)	3,474 (100.0)	1,441 (41.5)	2,033 (58.5)	4,310 (100.0)	529 (12.3)	3,781 (87.7)

※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성별 비율은 각각의 소계를 100.0%로 하여 산출하였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현황



- 전체 3,474개의 지역아동센터 총 종사자수는 7,784명이며, 이 중 시설장은 지역아동센터 개소당 1명인 3,474(44.6%)명이며, 남자가 1,441명(41.5%), 여자가 2,033명(58.5%)로 나타남. 전체 생활복지사 수는 4,310명(55.4%)이며 총 종사자 중 남자(생활복지사)는 529명(6.8%), 여자(생활복지사)는 3,781명(48.6%)로 조사됨.

7. 운영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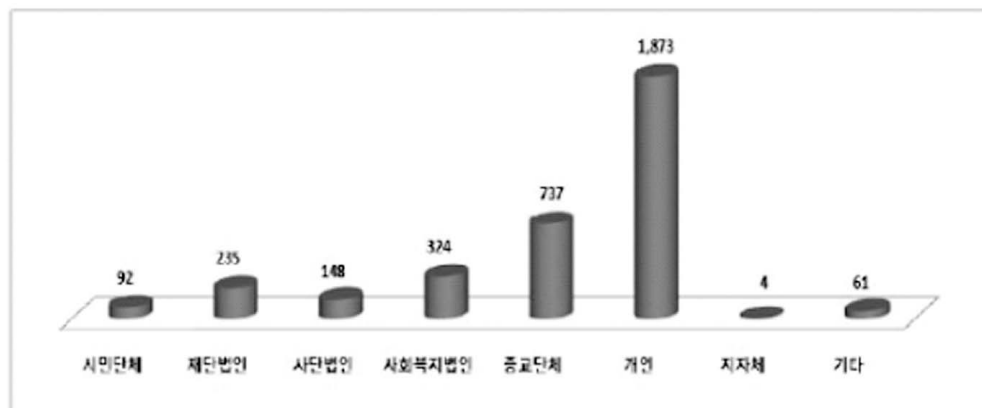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단위 : 개소,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1,709	2,029	2,618	3,013(100.0)	3,474(100.0)
시민단체	139	66	80	97(3.2)	92(2.6)
재단법인	117	144	146	180(6.0)	235(6.8)
사단법인	61	89	111	123(4.1)	148(4.3)
사회복지법인	170	245	267	302(10.0)	324(9.3)
종교단체	618	757	861	902(29.9)	737(21.2)
개인	559	660	1,085	1,322(43.9)	1,873(53.9)
지자체	4	5	4	6(0.2)	4(0.1)
기타	41	63	64	81(2.7)	61(1.8)

※ 기타 : 의료법인, 학교법인, 아파트운영회 등

운영주체별 지역아동센터 수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 전체의 53.9%(1,873개소)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종교단체가 21.2%(737개소), 사회복지법인이 9.3%(324개소), 재단법인이 6.7%(235개소), 사단법인이 4.3%(148개소) 순으로 나타남. 지자체운영의 지역아동센터는 2008년 6개소(0.2%)에서 2009년 4개소(0.1%)로 2개 감소함.

8. 정부보조금(국고+지방비)지원현황

1) 정부보조금(국고+지방비)지원여부

정부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895	1,709	2,029	2,618	3,013	3,474
정부 지원받음	454	789	881	1,859	2,619	2,859
정부 미지원	441	920	1,148	759	394	615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는 2008년 2,619개소에서 2009년 2,859개소로 240개소 증가함.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센터는 2008년 394개소에서 2009년 615개소로 221개소 증가함.

정부보조금 지원기간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9개월 미만	9~12개월 미만	1년
개소	2,859	26	28	35	23	2,747
비율	100.0	0.9	1.0	1.2	0.8	96.1

- 1년 동안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센터는 2,747개소(96.1%)로 나타났고, 6개월 이상~9개월 미만은 35개소(1.2%), 3개월~6개월 미만은 28개소(1.0%)로 나타남.

2) 지역별 평균 정부보조금(국고+지방비)지원금 현황

지역별 평균 정부지원금 현황

(단위 : 개소, 원)

구분	1개소 당 평균 정부보조금(국고+지방비)지원금				
	1년 평균 정부지원금			1년 미만 평균 정부지원금	
	센터수	1년 평균	1개월 평균	센터수	1개월 평균
합계	2,747	33,157,898	2,763,158	112	2,477,575
서울	261	34,220,262	2,851,689	14	2,969,947
부산	148	34,137,397	2,844,783	12	2,131,048
대구	67	33,160,577	2,763,381	1	475,500
인천	147	34,461,223	2,871,769	1	3,521,750
광주	152	32,821,769	2,735,147	11	1,336,364
대전	122	33,891,853	2,824,321	5	1,977,975
울산	47	33,119,149	2,759,929	2	1,881,648
경기	549	32,859,144	2,738,262	12	2,361,657
강원	128	30,868,683	2,572,390	3	2,995,987
충북	145	33,735,128	2,811,261	2	1,041,563
충남	142	32,687,376	2,723,948	4	2,490,278
전북	192	33,164,136	2,763,678	7	2,771,152
전남	280	32,468,979	2,705,748	10	2,162,571
경북	149	33,111,696	2,759,308	13	2,806,997
경남	166	32,472,999	2,706,083	10	3,773,686
제주	52	35,115,365	2,926,280	5	2,672,500

-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받는 정부지원금은 개소당 1년 평균 33,157,898원이고, 1개월 평균 2,763,158원으로 나타남.

9. 지자체 별도(운영비 외) 지원현황

지자체 별도(운영비 외) 지원여부 및 지원금 현황

지자체 별도 지원여부

(단위 : 개소, %)

구분	기관	비율
합계	3,474	100.0
지원	1,333	38.4
미지원	2,141	61.6

지역별 지자체 별도지원금 현황

(단위 : 개소, 원)

구분	기관	평균 지자체 별도지원금	1개월 평균 지자체 별도지원금
전체	1,333	5,368,747	447,396
서울	172	4,583,153	381,929
부산	14	10,679,502	889,958
대구	6	7,573,767	631,147
인천	126	5,078,192	423,183
광주	98	1,921,070	160,089
대전	4	11,043,763	920,314
울산	46	921,739	76,812
경기	167	9,924,985	827,082
강원	60	12,995,280	1,082,940
충북	50	4,369,798	364,150
충남	119	2,729,553	227,463
전북	198	4,418,965	368,247
전남	131	6,959,890	579,991
경북	43	5,640,107	470,009
경남	80	2,044,608	170,384
제주	19	4,489,474	374,123

10. 자원봉사자 및 기타 일자리 현황

1)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개인		기업		공무원		학생		종교단체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합계	104,785 (100.0)	934,171 (100.0)	27,997 (26.5)	387,302 (41.1)	11,025 (10.6)	47,039 (5.1)	1,764 (1.9)	13,341 (1.9)	55,200 (52.6)	385,179 (41.1)	8,799 (8.4)	101,310 (10.8)
서울	15,022 (14.3)	166,640 (17.7)	3,783 (3.6)	57,664 (6.0)	2,166 (2.1)	8,751 (0.9)	456 (0.4)	1,512 (0.2)	7,070 (6.7)	84,037 (9.0)	1,547 (1.5)	14,676 (1.6)
부산	5,761 (5.5)	74,319 (8.0)	1,743 (1.7)	25,653 (2.7)	458 (0.4)	3,052 (0.3)	107 (0.1)	441 (0.1)	3,105 (3.0)	37,105 (4.0)	348 (0.3)	8,068 (0.9)
대구	3,239 (3.2)	29,959 (3.2)	1,091 (1.0)	12,757 (1.3)	161 (0.2)	768 (0.1)	52 (0.1)	259 (0.1)	1,553 (1.5)	12,977 (1.4)	382 (0.4)	3,198 (0.3)
인천	6,540 (6.2)	37,482 (4.0)	1,514 (1.4)	15,943 (1.7)	307 (0.3)	1,896 (0.2)	37 (0.1)	409 (0.1)	4,531 (4.3)	17,336 (1.8)	151 (0.1)	1,898 (0.2)
광주	4,720 (4.6)	44,800 (4.7)	1,805 (1.7)	21,999 (2.4)	205 (0.2)	1,007 (0.1)	39 (0.1)	1,027 (0.1)	2,463 (2.4)	18,889 (1.9)	208 (0.2)	1,878 (0.2)
대전	8,003 (7.6)	42,223 (4.6)	1,506 (1.4)	15,444 (1.7)	679 (0.6)	2,136 (0.2)	38 (0.1)	432 (0.1)	5,432 (5.2)	18,985 (2.0)	348 (0.3)	5,226 (0.6)
울산	1,496 (1.5)	9,246 (1.1)	468 (0.4)	3,500 (0.4)	225 (0.2)	1,693 (0.2)	0 (0.0)	0 (0.0)	764 (0.7)	3,848 (0.4)	39 (0.1)	205 (0.1)
경기	22,901 (21.7)	177,948 (19.0)	6,159 (5.9)	70,851 (7.5)	2,404 (2.3)	9,734 (1.0)	359 (0.2)	2,541 (0.3)	12,188 (11.6)	71,819 (7.7)	1,791 (1.7)	23,003 (2.5)
강원	3,526 (3.4)	32,880 (3.5)	877 (0.8)	12,989 (1.4)	283 (0.3)	1,494 (0.2)	43 (0.1)	1,332 (0.1)	1,793 (1.7)	12,914 (1.4)	530 (0.5)	4,151 (0.4)
충북	4,238 (4.0)	52,994 (5.7)	1,053 (1.0)	18,942 (2.0)	833 (0.8)	1,481 (0.2)	130 (0.1)	1,473 (0.2)	1,723 (1.6)	20,519 (2.2)	499 (0.5)	10,579 (1.1)
충남	6,064 (5.9)	40,684 (4.4)	1,110 (1.1)	15,584 (1.7)	799 (0.8)	3,632 (0.4)	70 (0.1)	395 (0.1)	3,574 (3.4)	17,146 (1.8)	531 (0.5)	3,927 (0.4)
전북	5,347 (5.1)	58,429 (6.3)	1,389 (1.3)	28,775 (3.1)	289 (0.3)	1,063 (0.1)	94 (0.1)	951 (0.1)	2,971 (2.8)	22,375 (2.4)	604 (0.6)	5,265 (0.6)
전남	5,887 (5.5)	46,308 (5.0)	2,100 (2.0)	27,395 (2.9)	360 (0.3)	1,801 (0.2)	127 (0.1)	538 (0.1)	2,519 (2.4)	9,865 (1.1)	781 (0.7)	6,709 (0.7)
경북	5,789 (5.5)	57,654 (6.1)	1,554 (1.5)	26,441 (2.8)	952 (0.9)	5,625 (0.6)	108 (0.1)	873 (0.1)	2,731 (2.6)	15,858 (1.7)	444 (0.4)	8,857 (0.9)
경남	4,805 (4.7)	50,773 (5.4)	1,396 (1.3)	28,489 (3.0)	807 (0.8)	2,479 (0.3)	54 (0.1)	488 (0.1)	2,181 (2.1)	17,058 (1.8)	367 (0.4)	2,259 (0.2)
제주	1,427 (1.4)	11,832 (1.3)	449 (0.4)	4,876 (0.5)	97 (0.1)	427 (0.1)	50 (0.1)	670 (0.1)	602 (0.6)	4,448 (0.5)	229 (0.2)	1,411 (0.1)

자원봉사자는 실인원 104,785명, 연인원 937,17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학생이 실인원 52.6%(55,200명), 연인원 41.1%(385,17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개인이 실인원 26.5%(27,997명), 실인원 41.1%(387,302명)로 나타났다. 기타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총 3,711명이 1인당 월평균급여 872,097원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54.6%(2,029명)로 가장 많고,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노동부가 769,681원으로 가장 높았다.

2) 기타 사회적 일자리 현황

단위 : 명, %, 원

구분	전체			노동부			지자체			사회복지단체		
	인원	비율	월평균 급여	인원	비율	평균 급여	인원	비율	평균 급여	인원	비율	평균 급여
합계	3,711	100.0	872,097	634	17.3	769,681	2,029	54.6	684,750	1,048	28.1	600,332
서울	336	9.1	798,228	54	1.5	714,286	202	5.4	738,018	80	2.2	394,118
부산	228	6.2	747,524	39	1.1	686,122	86	2.3	613,099	103	2.8	372,215
대구	96	2.6	763,109	16	0.4	600,238	36	1	691,177	44	1.2	497,800
인천	223	6	929,144	55	1.5	718,411	127	3.4	699,940	41	1.1	587,273
광주	180	4.9	813,364	14	0.4	768,000	99	2.7	714,946	67	1.8	501,546
대전	145	3.9	826,002	26	0.7	710,133	76	2	696,669	43	1.2	684,571
울산	54	1.4	1,449,135	22	0.6	1,424,848	20	0.5	860,000	12	0.3	832,000
경기	968	26	986,671	192	5.2	828,330	545	14.7	694,703	231	6.1	683,000
강원	173	4.6	948,585	26	0.7	639,539	120	3.2	757,941	27	0.7	751,832
충북	167	4.5	957,177	28	0.8	630,219	86	2.3	745,427	53	1.4	884,011
충남	222	6	869,149	49	1.3	811,138	133	3.6	770,707	40	1.1	582,462
전북	303	8.1	803,906	53	1.4	692,435	153	4.1	686,472	97	2.6	465,600
전남	223	6	657,809	14	0.4	700,111	171	4.6	568,867	38	1	748,556
경북	120	3.2	799,291	26	0.7	814,859	59	1.6	658,029	35	0.9	452,365
경남	233	6.3	848,353	18	0.5	690,192	91	2.5	617,613	124	3.3	431,779
제주	40	1.2	774,909	2	0.1	650,000	25	0.7	719,375	13	0.4	706,333

3) 아동복지지도교사³⁾ 현황

아동복지교사는 총 5,63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기초학습교사가 40.2% (2,267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기초영어교사가 15.0%(846명), 예능활동교사가 11.1%(628명), 독서지도교사가 9.9%(558명)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교사현황

단위 : 명, %

구분	기초 학습	야간 복지	실무 지원	보건 위생	안전취가 지도	기초 영어	독서 지도	체육 활동	예능 활동	지역사회 복지사	전체
교사수	2,267	243	469	186	100	846	558	168	628	169	5,634
비율	40.2	4.3	8.3	3.3	1.8	15.0	9.9	3.0	11.1	3.1	100.0

11. 지역아동센터의 재정현황

1) 이용료 수납현황

센터 이용료를 수납하고 있는 센터는 8.6%(300개소)로 나타났고, 1센터당 이용료를 수납하는 평균 아동수는 13.4명, 1인당 평균 이용료는 26,287원으로 나타났다.

<표 2-46> 이용료 수납현황

이용료 수납여부(개소, %)			1센터당 이용료 수납 평균 아동수(명)	1인당평균 이용료(원)
전체	유료	무료		
3,474(100.0)	300(8.6)	3,174(91.4)	13.4	26,287

아동복지교사 파견은 총 2700명이나 여기에서 조사된 자료는 연계형이나 프로그램형으로 파견된 교사가 센터별로 중복된 숫자임.

12. 지역아동센터 중점프로그램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호와 교육을 선택한 센터가 3,007개소(92.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보호와 사례관리 47개소(1.4%), 보호와 문화체험 45개소(1.4%), 교육과 문화체험 44개소(1.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중점프로그램

단위 : 개소, %

구분	개소	비율
전체	3,474	
보호	23	0.7
보호+교육	3,007	92.1
보호+문화체험	45	1.4
보호+사례관리	47	1.4
보호+지역사회연계	15	0.5
교육	27	0.8
교육+문화체험	44	1.4
교육+사례관리	24	0.7
교육+지역사회연계	10	0.3
문화체험	1	0.1
문화체험+사례관리	5	0.2
문화체험+지역사회연계	5	0.2
사례관리	2	0.1
사례관리+지역사회연계	2	0.1
합계	3,257	100.0
무응답	217	

II. 지역 아동 센터 기독교 현황과 실태

(2009년 전국 기독교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이태수,이경림,이향란연구원)에서 발췌)

1. 일반적 상황

기독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을 지역사회의 유형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대도시가 28.8%, 중소도시가 35.8%, 농산어촌이 35.4%로 중소도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산어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별로 보면 기장과 예장합동의 경우에는 중소도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단들은 농산어촌이 가장 많았다.

운영주체는 종교단체가 51.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개인이 3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별로 개인이 운영주체인 비중이 가장 많은 교단은 기하성이 절반을 이루고 있어 가장 비중이 높았고 예장합동의 경우는 47.7%로 다른 교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종교단체는 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단법인이 가장 많은 곳은 성공회와 구세군이다. 교회의 자립여부로 살펴보면 자립교회의 운영주체는 종교단체(56.8%), 개인(27.5%), 재단법인(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자립교회는 개인(50.0%), 종교단체(46.3%), 재단법인(2.3%)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되기 이전에 이미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곳은 118개소이고 이 중 IMF이전에는 36개소가 운영 중이었고 이후에는 82개소가 운영 중이었다. 제도화 이후에는 227개소 그리고 2008년 한 해 동안만도 107개소가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독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미신고 기관이 0.4%여서 대체적으로 신고시설로 운영 중이다.

교회의 자립여부를 살펴보면 자립교회가 전체의 52.2%로 과반을 조금 넘었고, 미자립교회는 47.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별로 보면 기하성이 미자립교회의 비율이 다른 교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교회의 규모를 출석교인의 숫자로 파악한 결과, 50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가 전체의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1~100명 규모의 교회가 19.5%였고 교단별로도 이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개별교회와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

시설장이 목회자인 경우는 전체의 72.3%를 차지하고 있고 교단별로 보면 기타(77.4%), 예장합동(72.7%), 기하성(70.0%)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교단들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회의 자립여부로 살펴보면 자립교회는 시설장이 목회자인 경우가 65.7%이고 미자립교회는 79.6%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상근을 하는 경우는 전체의 79.2%이고 자립교회보다는 미자립교회가 상근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교적 목적, 하나님 말씀

의 실천 목적 순으로 기독교적 이념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적 목적과 아동교육적 목적이라고 응답한 교회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기독교적 이념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응답은 55.1%가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별로는 예장 합동이 60.2%, 기장이 59.6%, 기하성이 55.0%의 순이며, 미자립교회(59.7%)가 자립교회보다 더 많은 곳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교회 성도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평균 4.4점으로 나타나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평균 금액은 월 68.8만원으로 비교적 재정적 지원을 충분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전용시설이어서 교회와 분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 운영되는 경우는 86.7%, 그렇지 않은 경우가 13.3%로 나타났으며 자립교회보다 미자립교회가 오히려 분리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의 인식정도

교회와 지자체와의 관계에 대해 좋은 편이라는 응답이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좋은 편이라는 응답도 36.5%로 나타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전체의 98.7%였다.

인근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관계(97.1%)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교회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아동센터들과의 관계 역시 긍정적인 관계가 9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단별이나 자립여부로 보아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4. 소속 교단과의 관계

교단과의 관계에서 교단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93.4%로 나타났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는 전체의 6.6%로 매우 적었다. 교단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도 전체의 3.3%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에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아니다’가 50.2%, ‘아니다’가 44.5%로 94.7%가 교육 및 훈련과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다. 교단에서 교회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문제를 상담해주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9.9%에 불과하였다.

5. 지역아동센터 운영 효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를 교회가 운영함에 따라 교회 목회자들이 목회활동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별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모임 유무를 살펴보면, 13.7%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부분

(86.3%)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별로 살펴보면 기하성(100%)의 경우는 모두 모임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예장 합동(95.3%), 기장(88.9%)의 순이다. 미자립교회가 90.7%, 자립교회는 82.2%가 교단별 모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교단별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88.3%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11.7%는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교단별로 담당부서가 있으나 현장과의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은 한 주에 평균 5.6일, 하루 평균 운영시간은 10.7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기 중 급식은 하루에 한 끼를 제공하는 경우가 88.5%로 가장 많았고, 교단별, 자립유무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남아가 평균 15.7명 여아는 평균 16.7명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1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황별로 이용아동을 살펴보면 일반가정의 아동은 11.9명, 일반가정으로 학교중식지원자 아동은 6.5명, 차상위가정의 아동은 10.9명, 기초생활수급권가정의 아동은 7.8명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별로 살펴보면 양부모가정의 아동이 18.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모자가정이 5.9명, 부자가정은 4.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7. 재정 및 회계상의 특징

정부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센터는 94.2%로서 전체 센터의 지원율보다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74.5%의 센터는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개인후원을 받고 있는 센터도 77.4%에 달했다.

기독교단에 속한 센터의 월 총수입은 5,962천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2,877천원으로 가장 많아 48.2%를 차지하며, 급식비 지원액도 평균 2,254천원을 차지하여 37.8%의 구성비를 보인다. 그 외에 민간단체후원금과 외부후원금,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총지출은 월 6,078천원이며 그 구성에 있어서는 급식비 지출이 가장 많아 월 2,385천원이 지출되며, 다음으로는 인건비가 34.3%인 2,085천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16.0%인 971천원, 그리고 관리비가 11.5%인 697천원 등으로 구성된다.

8. 시설 및 설비상의 특징

기자재 보유율을 설문한 결과, VTR은 60.4%, 컴퓨터는 84.0%, 프로젝터는 35.6%, 칠판 또는 화이트보드는 92.3%, 캠코더 16.8%, 카메라 70.4%로 나타나 캠코더나 프로젝터의 보유율이 낮게 나타났다. 보유대수에 있어서는 컴퓨터가 센터당 4.2대인 반면 캠코더는 10개 센터당 1대 정도를 보유할 정도로 극히 낮게 나타났다.

교재교구의 충분정도에 있어서는 불충분함에 응답한 경우가 매우 많았고 특히 미자립교회의 교재교구에 대한 불충분을 호소하는 정도가 심하였다. 이들 교재교구 중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문한 결과 컴퓨터(19.9%), 프로젝터(17.9%), 에어컨(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비현황을 보면, 전용조리실은 대부분 갖추어져있으나 조리실이 없는 곳도 6.2% 존재하였다. 냉장

고와 선풍기 등도 대다수 갖추고 있었으며 정수기 85.8%, 에어컨 81.6%의 구비율을 보여 많은 센터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환기시설(54.4%), 비밀문서보관함(19.9%) 등은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다.

9. 종사자의 특징

기독교단 센터의 상근 종사자수는 평균 2.9명이며, 비상근 종사자 4.3명이 일하고 있다. 이를 합치면 센터 당 평균 7.2명이 아동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 특성으로서는 대표자(78.4%)와 시설장(55.4%)의 경우는 생활복지사(12.9%)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대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평균연령이 49.9세, 시설장이 47.1세, 생활복지사가 39.9세였다. 학력은 대표자의 경우 대학원졸이 69.3%, 시설장의 경우 52.4%로서 가장 높았고, 생활복지사는 대졸이 80.2%로서 매우 높은 편이었다. 근무형태에 있어 대표자의 30.7%, 시설장의 13.9%가 비상근이었다. 교회 내 직분을 보면, 대표자의 절대다수인 76.9%가 목사이며 시설장은 51.3%였다. 사모가 대표자의 11.3%, 시설장의 22.9%였고, 생활복지사의 30.3%였다. 이외에 집사가 생활복지사의 26.7%를 차지하고 있었고, 장로 및 권사, 전도사 등 다양한 직분으로 구성되었다.

월급은 대표자의 경우 월평균 13만원, 시설장 36만5천원, 생활복지사 9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4대 보험 가입율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보여 건강보험만이 50%내외를 보이고 있을뿐, 국민연금 30%내외, 산재나 고용보험은 10%내외를 기록하고 있었다.

한편 근무기간에 있어서는 생활복지사의 33.5%가 1년 미만의 단기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자 50.4개월, 시설장 47.8개월, 생활복지사 33.9개월 정도를 보였다. 대다수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대표자의 77.8%, 시설장의 87.7%, 생활복지사의 77.8%였으며 정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등의 자격소지자도 있었다.

10. 지역사회와의 관계

지역아동센터의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타 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동사무소, 학교, 아동복지시설, 유관기관, 인근지역아동센터, 보건소, 기업과의 연계를 물어본 결과 '인근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와의 연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여부(자립, 미자립)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이 없으며, 교단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유관기관(건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과의 연계와 기업과의 연계내용이었다. 유관기관과의 연계에서 기감이 가장 많은 유관기관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연계(30.8%)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기업과의 연계에서는 기하성과 기감이 높은 연계를 보였으며 주로 물품지원을 위한 연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프로그램 운영

각 프로그램별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10만점 척도에서 보호프로그램이 8.9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8.4점), 복지(8.3점), 문화(7.6점), 종교(7.2점), 지역사회연계(7.2점) 프로그램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프로그램을 중점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단별로 프로그램 중요도를 살펴보면 기감, 기장, 기하성, 예장통합, 예장합동 모두 보호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교육, 복지, 문화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자립여부별로 프로그램 중요도를 살펴보면 교단별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 모두 보호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교육, 복지, 문화 프로그램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2. 제도적 개선 및 교단 희망사항

1) 8가지 영역에 대한 개선사항 정도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를 아동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시설의 회계·공분작성 등 행정처리, 종사자의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후원개발, 재정조달, 지역사회연계, 교회(교인)과의 관계 총 8가지 영역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첫째 후원개발, 재정조달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개발, 사무행정, 종사자 관리이며 교인과의 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교단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며, 자립여부에는 아동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교회 교인과의 관계는 자립교회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미자립교회가 자립교회보다 어려움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교단에 대한 요망사항

교단에 대한 요망사항 1순위를 교단별로 살펴보면, 모든 교단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요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하성은 85.0%가 재정적인 지원을 요망하고 있었으며, 예장합동이 75.0%, 기감이 67.3%, 예장통합이 63.0%로 재정적인 지원을 요망하고 있었고, 기장이 44.4%로 가장 낮게 재정적인 지원을 요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교단에 대한 요망사항을 교단별로 보면, 기감은 교회 내 다양한 자원연계(15.4%), 행정 처리에 대한 지원(5.8%) 순으로 요망하고 있었으며, 기장은 교회 내 다양한 자원연계, 자원봉사 연결이 각각 14.8%로 나타났다. 예장통합은 자원봉사연계(15.2%), 교회 내 다양한 자원연계(7.6%) 순으로 교단에 대한 요망사항이었으며, 예장합동도 교회 내 다양한 자원봉사연결과 자원봉사연계가 각각 6.3%로 교단에 대한 요망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여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립교회(60.6%)와 미자립교회(73.6%) 모두 재정적인 지원을 교단에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립교회에 비해 미자립교회에서 교단에 재정적인 지원을 더 많이 요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3. 교회에 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장단점

1) 장점으로서는 첫째 교회자원 활용, 둘째 교회부흥이나 전도측면, 셋째, 선교적 사명을 이룰 수 있

음, 넷째, 지역사회 내 교회이미지가 좋아졌음. 다섯째, 지역사회 다양한 활동에 참여 가능 등으로 응답하였다. 자립여부로는 미자립교회가 지역사회 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아동복지 측면이 9%, 개인적 보람 및 생계가 1%로 조사되었다.

- 2) 단점으로는 첫째 교회운영의 어려움, 둘째, 업무의 과중으로 목회 전념의 어려움, 셋째, 아동복지 시설보다는 종교단체로의 인식(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 넷째, 선교에 방해됨, 다섯째 사회적 편견(교회가 돈을 벌기 위해 운영한다는 오해) 등으로 응답하였다. 그 외 교회내부와의 마찰, 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 후원개발의 어려움 순으로 응답했다.

14. 목회자운영여부에 따른 특징

시설장이 목사, 전도사, 부목사 등 목회자인 경우는 종교단체에서 그 비중이 높았고, 예정합동, 예정통합의 경우가 많았다. 목회자가 운영하는 경우는 비목회자인 경우보다 전용공간이 많았으며, 지자체와의 관계가 좀 더 원활하였다. 반면 목회자가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단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는 정도가 더 높았으며 교재교구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중이 더 높았다.

교단에 대한 요망사항을 목회자와 비목회자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목회자와 비목회자 모두 재정적인 지원을 가장 많이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회 내 다양한 자원연결, 자원봉사연결 등을 다음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15. 기독교 지역아동센터의 발전 방안

1) 정부

- (1) 2009년 하반기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개별 센터에 대한 평가가 시작된다. 이 평가과정에서 종교기관이 가지는 장점과 특성들을 고려되어야 할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농산어촌의 경우 종사자 상근에 대해서는 지역에 일정 자격을 갖추고 센터를 운영할 인력이 없는 경우 (특히 면이나 리 단위) 종교기관의 목회자 및 목회가 가족이 유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센터 운영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재정조달”, “후원개발” 등이 실태조사에서 다시 발견되었다. 정부에서는 한 센터가 운영되기에 적절한 운영비 지원 및 법적 자격 종사자를 배치할 만한 전문인력에 대한 인력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지역아동센터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센터가 될 것이다.
- (3) 현재 지역아동센터장의 상근 여부에 대한 준수여부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왜냐면 인건비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유급 시설장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하는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시설장의 상근을 요구하는 경우와 구분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2) 교단

- (1) 본 조사를 통해 각 교단의 관계를 보면 교단 내 지역아동센터 관련 부서나 담당자가 없으며, 따라

- 서 교단 내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지도점검, 지원, 교육훈련등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독교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교회란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교단 내 지역 아동센터 담당부서 혹은 담당자를 배치하여 지속적인 수퍼비전 및 정보공유를 하여야 할 것이다.
- (2) 교회의 일반적 상황을 보면 목회자가 센터에 상근할 경우, 애로점에서도 조사되었듯이 소진의 문제가 발생하며, 목회에 전념할 수 없거나 혹은 센터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중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하거나 센터 운영에 전념하게 할 수 있는 교단적 지원이 요청된다.
 - (3) 각 센터들의 다양한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 중 후원개발의 어려움과 재정적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별 교회에서 후원개발 혹은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것 보다는 각 교단 내 사회봉사부와 같은 곳에서 또는 여선교회나 여전도회 같은 곳과 연결하여 후원개발 하고 재정적 부담을 나누어지는 방법이 요청된다.
 - (4)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의 어려움과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교단 내에서 혹은 한국교회봉사단과 같은 곳에서 기독교 영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보급하여 개교회에서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5) 지역사회 있는 동일한 교단의 중형교회 내 여선교회와 결연을 맺어 재정 지원과 더불어 자원봉사 연결 혹은 타교회의 공간사용 등의 지원을 통해 미자립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천적 프로그램을 연결한다.
 - (6) 각 교단 내 지역아동센터 관련 부서 뿐 아니라 본 조사의 대상이 된 15개 교단 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control tower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현재 개별교회 또는 목회자 개인, 신자 개인들이 운영주체가 됨으로써 센터의 운영에 대한 교단의 지원이나 개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고, 정부로부터도 민간개인시설로 취급되어 불신의 대상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교단 소속의 법인 아래에 현재의 센터들이 소속되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7)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의식으로 현재 기독교단에서 지역아동센터에 활발히 참여하여 기독교사회복지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면이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본래 종교사회복지의 특성인 개척적 정신, 선구적 정신 등을 생각할 때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간 지역아동사업 외에도 아직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많은 미개척의 영역으로 참여영역을 전환하려는 노력이 요망되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가 해야 하는 또 다른 역할에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개별 센터

- (1) 지역아동센터가 한국의 아동복지 역사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은 민간 특히 기독교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진행하던 사회복지서비스가 법제화되어 공적 영역으로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렇듯 지역아동센터를 법제화한 주요 주체로서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개별 센터들은 지역아동센터가 공공성을 가지는 시설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

민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 (2) 본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센터 운영의 어려움 중 하나를 전문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였듯이 아동복지시설로서 전문성을 가지는 센터 운영에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등 서비스의 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3) 기독교 운영 센터라는 것이 단점도 있지만 교단이 있고 목회자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운영센터들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열린 센터로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다른 센터들과 더불어 연합하고 네트워크하여 지역사회의 아동보호에 선도적인 역할들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4) 기독교사회복지의 의의 중 하나로서 이슈 제기자를 들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아동복지 시설 중 가장 빈곤아동과 지역에 가까이 있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개별센터들은 빈곤아동 및 가족들의 욕구와 해결되어야 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사회변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5) 전국에 지역아동 센터의 상당 부분을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교회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와 연결로써의 봉사기관으로 중요한 역할로 보면서도 자칫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때에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기독교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도 있다.

